

다시 골목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김소희

이동근의 이번 <모던 시티-좌천아파트> 연작은 부산의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의 하나인 좌천 아파트에 대한 기록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문화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근대화 의미 넘어 부의 상징이자 생활과 문화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었다. 도심 곳곳에 브랜드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새로운 스카이라인으로 스펙터클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그는 왜 낡고 초라한 오래된 아파트를 주목하는 것일까.

산과 바다 사이의 좁은 평지로 이루어진 선형의 공간 구조를 가진 부산의 지형적인 조건은 부산만의 독특한 주거 환경을 형성하게 했다. 개항 이후 부산에 상륙한 일본인들은 도시 중심부를 차지하고 조선인들을 번두리로 밀어내거나 산기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일본인들이 체계적인 도시 계획으로 일본식 주택과 상수도 시설 등을 갖춘 근대 도시를 만들어갈 때 조선인들은 수도와 도로 시설이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렸으며 산기슭에 판잣집을 짓고 살게 된 것이다. 해방 이후 일본과 만주 지역에서 귀환하는 동포들과 6.25 전쟁 피란민들이 모여들어 1950년대 이르면 부산의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서게 되었고 이들 역시 대부분 도시에서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산비탈에 불법 주거지를 이루며 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하꼬방(상자를 뜻하는 일본어 '하꼬'와 우리말 '방'의 합성어로 상자 같이 작은 집을 의미)이라 불리던 판잣집으로 빼곡히 들어찬 산동네는 해방과 전쟁 후 어려웠던 시기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거 공간이 되었다. 이 산동네를 미세하게 연결하는 것이 1964년 10월에 개통된 이른바 산복도로이다. 피할 수 없이 처해진 역사적, 공간적 조건에 순응하면서 삶의 터전으로 뿌리내린 이들에게 산복도로와 골목은 마치 몸에 흐르는 혈관처럼 삶을 이어가게 하는 생명의 길이었을 것이다.

<모던 시티-좌천 아파트> 연작은 작가가 중, 고등학교 시절 자주 지나다녔던 골목과 친구네로 놀러 다녔던 좌천 아파트를 오랜만에 다시 찾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2010년 7월부터 시작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이었던 '산복도로 다시보기'는 좌천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진과 인문학 강의를 하고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전시를 개최하는 것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계기로 30여 년 만에 다시 가본 그곳 아파트의 외벽은 낡은 페인트가 벗겨져 여기저기 얼룩이 생겼고, 여전히 어두컴컴한 복도, 축대 사이에 빨래가 널린 옹색한 풍경은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았으며 마치 그곳에만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 매우 놀라웠다 한다. 바다 가까운 평지, 불과 얼마 전까지는 영화 속에서나 보았던 초고층 건물들이 거대한 숲을 이룬 듯한 마린시티의 미래지향적 도시 경관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좌천동의 풍경은 개발 이데올로기의 광풍이 비껴간 결과일 것이다. 지형적 특성상 또는 개발 이익의 예외 조건으로 재건축이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 지역의 환경 개선은 공동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나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을 통해 도시 미관을 살리는 수준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부산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공간을 재발견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감천문화마을이 문화 지구로 거듭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독일의 인류학자 라하르트 반 뢰멘은 1930년대 독일 사회를 규정하면서 "특정한 사회의 발전이란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이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마련이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생활 관계의 영속적인 근대화란 것도 유럽, 특히 서유럽의 다양한 사회집단과 지역에서조차 대단히 불균등하고 상이한 속도로 이루어져 왔다. 고도로 발전한 지역과 사회 한가운데에서도 마치 치외 법권 지역과도 같은 '낙후된' 지역이 적잖이 발견된다. 결국 모든 사회집단은 자신의 고유한 역사와 경험을 갖는다."고. 사진가 이동근이 최근 재발견한 좌천 아파트 작업이 1960년대 말에 머물러 있는, 여전히

낙후된 것으로 '모던 시티'라는 수식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발전이 고르지 못한'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간대의 공존'처럼 우리 사회의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필가인 발터 벤야민의 주요 저작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는 도시의 현대성을 성찰하는 것이었다. 그는 현대 도시를 자본주의의 중심이자 자본주의가 낳은 착취, 불평등, 소외, 인간 경험의 축소 등이 넘쳐나는 악의 표상이라고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누구보다 베를린과 파리와 같은 유럽 대도시의 유쾌함에 매료되었던 인물이다. 그에게 도시의 현대성은 창작의 동력이었으며 현대 도시의 건축물, 공간, 도시 거주민과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감각적인 문체의 단상들은 지금 여기의 우리를 그 도시의 속으로 이끌어 가는 매력이 있다.

"살아가는 건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라는 말과 더불어 도시 거주민들의 흔적을 통하여 도시의 물리적 환경 구조 속의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고 해독하고자 했던 그의 사유는 자신의 도시 경험을 통하여 수많은 텍스트를 생산해내었다. 그는 도시와 주변적인 도시 환경과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했다. 프랑스 사진가 으젠느 앳제가 그러했듯이 그는 '눈에 띄는 볼거리'와 도시의 '이정표'는 그냥 지나치는 대신 대도시의 진부하고 사소한 부분들을 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벤야민의 접근은 "일상을 범접할 수 없는 것으로, 범접할 수 없는 것을 일상으로 지각하는 변증법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동근의 작업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그의 시선 역시 벤야민의 눈처럼, 앳제의 시각처럼 좌천 아파트 주민들의 평범한 삶의 흔적들을 따라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의 평범한 초상과 생활 도구들을 소소히 담아낸 사소한 일상의 편린들이 곧 그들의 삶을 대변한다. 자전거나 화분 등 내다 놓은 물건들로 어지러운 좁고 어두운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고무장갑과 가재도구들이 어수선하게 정리된 주방 싱크대, 이러한 입식 부엌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한 칸에는 쪼그려 앉아서 걸레 등을 빨게 만들어진 수도가 설치된 다용도실, 온돌을 깔아 좌식 생활을 하는 안방까지 따라 들어가다 보면 서구식과 한국식, 입식과 좌식 문화를 묘하게 결합한 독특한 아파트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다. 크고 작은 장독을 내다놓은 공용 공간과 아파트의 퇴락한 외부 구조는 개보수가 잘 이루어지는 대단지 아파트의 공용 공간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살고 있는 이들의 삶의 결이 온전히 녹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작은 평상에 모여 앉은 몇몇 주민들의 친근한 모습은 아파트라는 이 근대식 주거 공간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다는 공동체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거대 자본이 만들어내는 주상복합건물의 뷰는 입주민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들은 제거한 탁 트인 시야인 것에 반해 이 낡은 아파트가 위치한 곳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은 소박하고 그 야경 또한 친근하게 다가온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홍차에 적신 마들렌 과자를 맛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처럼 아마도 부산 토박이 사진가 이동근은 30여년 만에 다시 찾은 산복도로의 어느 골목에 서는 순간 유년 시절의 시공간으로 훌쩍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은 아닌가 싶다. 벤야민이 프루스트의 '무의지적 기억'은 기억의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망각에 대한 작업이라고 한 것을 떠올려보자. 프루스트가 마들렌 맛을 보는 순간 마들렌은 잊어버리고 그로부터 상기되는 다른 이미지들을 따라가면서 글쓰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페넬로페가 옷감을 짜면서 처음 생각한 무늬를 잊고 다른 무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동근 역시 그 골목에서 바라본 '창문 틈의 장독'. 그 낯설면서도 친숙한 하나의 장면을 맞닥뜨림으로 인하여 금새 '장독'은 잊어버리고 마치 혈관처럼 걸린 가스 배관줄을 따라 좌천 아파트의 이곳저곳을 살살이 찍으면서 30여 년 전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떠났을 것만 같기 때문이다.